

한글서체

총적기치

# “자주여성의기치높이 들고

## 자주·민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내달리자!”

기치해설 : 사람은 세계에 있어 유일하게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 변혁하고 자기의 운명으 르 개척하는 개조자이려, 지배자이고 자연과 사회운명의 개조자이라고 했습니다. 총노선이 앞으로 어떻게 살것인가를 밝히는 것인만큼 세계의 개조자이고 지배자인 사람, 그중 여성들이 낡은 봉건잔재를 깨부수고 자본에 빼앗긴 자주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올해 무엇보다도 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여학생들의 통일된 목표와 통일된 행동지침을 가져가야 합니다. 하여 총학생회강화, 자주적학생회강화에 복무할때 우리는 여학우들의 자주적 삶을 보장할 수 있고 인간해방 여성해방의 길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96·97년을 권력재편기라 말합니다. 올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시기면 늘 그렇듯이 여성들의 인권유린이 현저히 나타나게 되고 80년 5월 여성들이 당한 갖은 모진수모 속에서도 그렇고 통일의 길에 앞장서는 고애순씨 삶에서도 어느것 하나 권력이란 것이 여성의 자주적 삶을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 찾아가는 것 뿐입니다. 자주여성의 삶에서는 더 이상 굴종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개인의 능력이 특출나서,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주여성의 굳건한 테두리에 뽄뽄뽄쳐 너와 내가 하나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때문에 올해에는 어느때보다도 자주여성의 기치를 높이들어야 합니다. 또하나 여성의 억압은 미제식민지하에 살고 있는 남한사회에서 현격히 나타납니다. 식민지 사회를 깨부수고 봉건잔재를 없애기위해서는 자주·민주·통일의 길에 함께해야 합니다. 자주여성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조선여성으로서 민족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 청년여학도를 책임지고 함께하는 총여학생회에서는 올해 기치를 실현하기위해서 여학생총단결로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 1. 사상적 측면

#### 주체사상 일지단결로 자주여성 삶을 제현하자

고민지점 : 기간 민족목대 여·운이 11년의 역사를 걸으면서 대부분 여학우를 대상화시키는 문제 나열식 소모적 사업, 일시적 사업을 참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운에 대한 간부들의 단 기간 전망속에서 늘 고민을 반목해왔고 그 속에서 많은 정체성들을 보였습니다. 간부들을 실무 일꾼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결국은 그 간부의 정치적 생명을 빼앗은 적도 있었고 기간 총화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 속에 변혁의 요구가 민중들로 부터 나날이 높아가는 지금 녀녁일꾼들에게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운동의 대중화로 인하여 여성운동이 크나큰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의 논리가 조성한 여성운동은 어디까지나 우리 변혁운동역량의 훼손이요, 우리 사상 여성운동에 있어서 큰 해악인 것을 간부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극복하는 방도 : 변혁운동을 하자면 사상에 대한 통일적 인식이 시급합니다. 하여 소조나 기타 활동에서 스스로 사상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가야 겠습니다. 더불어 시기식 정세교양을

위해 간부들이 돌아가며 토론을 조직화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학원에서 여학운동을 펼쳐가자면 여성스스로가 깨어날 수 있게 해야할 뿐더러 여학일꾼은 스스로 여학일꾼임에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길가는 사람들의 여성운동, 여학운동에 대한 통일적 인식을 위해서 간담회를 조직화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속에서 여학우들의 자주적 삶은 보장될수 있겠습니다.

## 2. 조직적 측면

### **기층을 강화하여 여학운동의 역신을 일으키고 여학단위의 자생력을 키워내자**

**고민되는 지점** : 여·운을 보다 조직적으로 고민할라치면 부딪치는 것이 늘 역량문제입니다. 선 거철이면 간부인선 문제로 단위와의 실갱이는 일상적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여학운동은 사람때꾸기 운동도 아니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데 이제까지 여학생회는 그 존재여부를 늘 언급해야 했고, 단위에 맞게 정책을 생산하기는 커녕 주어진 역할도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여 매번 여·운에 대해 고민할때는 발전전망 없는 고민이 허다했고 현상유지도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극복하는 방도** : 지난해 소모임 건설 성과점을 이어받아 각 과 소모임 건설을 고민하고 과 여학생회의 튼튼한 발판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여학생회발전특별위원회를 제기하여 중앙은 비대하고 단위는 부실한 지난해 교훈을 되살려 과정책을 내오고 단결의 기풍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여 총여학생회에서 과여학생회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과여발특위에서 각과 다시말해 확대운영위를 담보할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과여발특위 모범을 전파하는 속에서 정기 확대운영위 말고도 긴급 확대운영위도 소집하여 여학우들한테 정치적 생명을 불어넣어야 하겠습니다. 또하나 기층단위를 건설 강화하면 여학단위의 자생력이 백배해지겠지만 늘 문제시 되는 것은 간부입니다. 각성된 여학일꾼 여성일꾼들이 조직생활을 원할히 되지 못했을 경우는 아무리 기층강화를 위한 고민을 많이 하더라도 책임지지 못할 사업만 벌여놓는 꼴이 되고 맙니다. 때문에 소조운동을 강화하여 조직생활을 담보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총여에는 3개의 소조가 있습니다. 달래소조에서는 목대의 곳곳한 여성일꾼을 키워내는 것에 주력하여야 하며 이쭈시개소조에서는 확고한 핵심여학일꾼을 키워내는 것에 주력을 해야하고 중앙시장소조에서는 핵심여학일꾼을 보장해줄수 있는 강직한 일꾼으로 키워내야 하겠습니다.

조직생활의 기본인 회의, 학습, 위임분공, 점검총화에 대한 교양은 항시적 조·종례를 통하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3. 대중적 측면

### **주제사상으로 여학우의 자주성을 배가시키자**

**고민되는 지점** : 고민하기에 앞서 각자의 대중관을 다시한번 짚어보았으면 합니다. 대중사업이나 운동을 편하게 하자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결코 편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뭍하나 편하기 위해서운동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